

## 韓·美 방위산업 협력 증진

### 한국의 방산업체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방위팀

#### ● Louis C. Menetry

韓·美 연합사령관, 육군 대장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회원 여러분! 조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연합방위팀과 우리들의 임무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대는 본인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도전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많고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식과 관심을 얻을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서로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지휘하는 군의 임무와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군의 임무는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 이후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임무는 연합군과 방위산업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함과 아울러 동시에 남한을 공산화 하겠다는 어떠한 의도라도 부술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36년동안 양국의 집단안보협정을 통하여 이 임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여 이제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1953년 전쟁으로 파괴된 그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동북아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갖게 되었으며, 태평양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북

쪽으로부터의 위협이라 할수 있습니다. 北측은 韓半島 武力赤化統一의 妄想에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늘 이 자리와 유사한 많은 행사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行態와 外向에 있어서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양의 지도부는 예전처럼 예측불허이며, 그들은 군사력의 모든 분야에서 양적인 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戰時經濟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군대와 무기는 전방에 추진,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최소의 경고하에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이 그들의 군사적 능력을 말하면서 「量적인 한계」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만, 「質적인 한계」라는 다른 용어와 연관해서 볼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덕택에 우리는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상에서, 한반도 영공에서, 또한 지상에서도 우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 전원의 군기와

정신상태, 주요 전투 乘數요소 및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자원과 기술의 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예하 구성군이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공화국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연합사령관으로서, 본국의 군에 대하여 토의하는데 기꺼이 임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연합군의 능력에 대하여, 특히 한국군의 능력과 공헌, 많은 성과등에 대하여 칭찬하는데 더 큰 즐거움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고도의 능력을 갖춘 군사적 동반자로 부상하였으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방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과정은 한·미군의 일일업무처럼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한국군에 보급되어 제작되고 있는 주요 방위품목들을 다 열거할수 있는 시간이 없으므로 다만 무기와 장비의 질을 칭찬하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 노력의 한 구매자로서, 한국방위산업체들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방위팀이며, 고도의 능력있는 방위팀을 위해 훌륭한 장비체계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초청으로 9월 5일 호텔 신라 다이내스티홀에서 관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韓·美 방산협력 증진을 주제로 Menetry 한·미 연합사령관 초청강연이 열렸다



## 韓·美 방위산업 협력 증진



이 날 특별강연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柳續佑회장은 Menetry사령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잠깐 말머리를 돌려 향상되고 있는 미군 전력에 대하여, 미측 방위산업체에 대한 칭찬이 되겠습니다만, M113-A3 장갑차량, ANVIS 야간 투시경, 重戰衛기동차량, 다목적 병원차량, OH-58D 헬기, CH-47D 시누크헬기, 최근의 M-1 전차 등 주요장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군수와 계약, 기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있는 자원, 즉 연합방위팀의 훌륭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민간인 고용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의 방위노력의 핵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말로 모든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재연합이다만 가장 중요한 방위자원은 人的 자원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기술,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수호를 위한 것인만큼 그들은 모두 훌륭한 동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은 여러분께서 대표로 계시는 방위산업체 요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방 참호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학자, 기술자, 경영진,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들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전투 동반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부디 여러분의 사업소나 공장에 근무하는 훌륭한 그 분들에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결승점에 뛰어들 용기와 헌신과 전문지식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더없이 깊고 따뜻한 감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회를 갖도록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ouis C. Menetry 사령관과의 對談

기아기공 김성웅 사장 :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사시에 대비, 아시아 또는 세계 자유진영의 군수 및 동원기지로 한반도를 활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메네트리 : 한반도의 전략적인 위치와 중요함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이 주는 군수 및 근무지원을 통하여 양국의 상호 이익이 잘 뒷받침되어 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양국간의 동맹관계가 오래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양국은 공통되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와 세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양국의 이해는 공통된 것입니다.

한벨헬리콥터 심재용 사장 : 현재 주한 미군이 보유중인 벨헬리콥터의 정비용역을 한국업체에 맡긴다면 신속한 정비와 경비절감을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

메네트리 : 미군에는 일정수준의 전장 정비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성부대 정비능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정비 이상의 정비는 한국 방산업계의 도움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바, 앞으로 좀더 많은 물량의 정비를 한국방산업계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화약 이상문 부사장 : 지난 8월 9일 사령관께서 美 국방부에서 가진 뉴욕타임즈 헬로란 기자와의 인터뷰중에서 90년대 중반이후 주한 미군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나 동지에서 그렇게 했으며, 과연 실현될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메네트리 :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전쟁억지를 위해서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주한 미군의 현재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감안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재평가해야할 것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90년대 중반에 가서의 재평가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 북한의 무력증강 등 많은 일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존재(주둔)가 동북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한·미 양국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90년 중반에는 재평가해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좀더 부연하면 부시 美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천명한 것이나 체니 국방장관이 지난 워싱턴에서의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변동이 없으며, 주한 미군철수의 계획도 없습니다.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해서도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계속되는 정상적 과정의 일이므로 과히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防振會 주영일 해외사업부장 : 현재 미국은 나토 16개국은 물론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과 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AA(美 구매법)의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미국내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상호 공동연구개발, 생산, 조달 등 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상호 조달협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협정체결은 한국내 미국제품 점유율 제고등 미측에도 이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메네트리 : 지난 몇 년간 군수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지난 워싱턴 회의는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확정된 시점이나 세부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MoU가 좀더 토의를 거쳐야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상호구매에 관한 사항도 뒤따르게 되리라고 봅니다. \*